

6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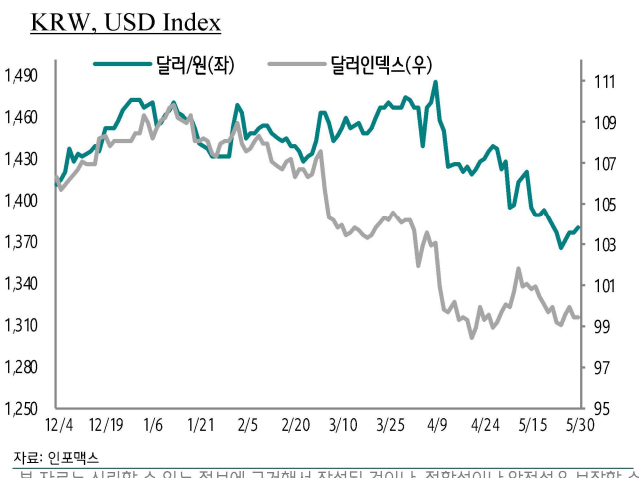
다시금
무역갈등
, 리스크오프에
상승
전망

[USD/KRW]

USD/KRW 예상 : 1,378~1,388원
NDF 증가 : 1,380.10 (Swap point : -3.05, 1,383.1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인한 위험회피심리에 상승 우세 전망. 주말 앞두고 현물환 증가 대비 소폭 오른 역외 달러원 환율 반영하여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 1380원 중반대로 상승 개장 예상. 다만 지난주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 및 이월 네고물량이 상당 무겁게 할 요인임. 한국의 새 정부출범 및 연휴 앞두고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나 차주 FOMC 앞둔 경계감에 미 주요지표 대기하며 제한적 강세 전망.
- (전일 동향) 전일 달러원 환율은 1371원 개장 후 간밤의 글로벌 달러 강세 반영하며 상승 우세 흐름. 최근 큰폭의 하락폭 되돌림 압력에 결제수요 더해지며 상승세 지속, 1380원대를 상향 돌파. 1382.3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 상승폭 일부 반납, 1380.1원으로 정규장 마감함.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 새정부 출범 앞둔 변동성	• 이월 네고물량 • FOMC 앞두고 주요지표 발표 경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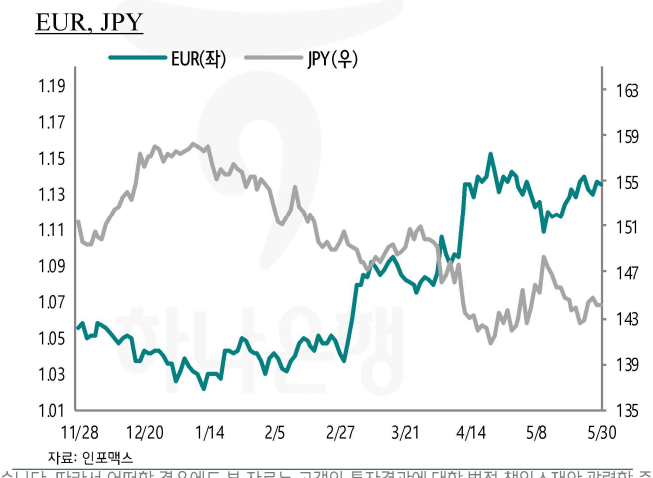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1300~1.1400
USD/JPY 예상 : 143.30~144.30

- (USD Index) 글로벌달러는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영향 받는 모습. 중국이 제네바협약을 위반하였다는 트럼프의 도발에 달러인덱스는 하락세 보이다 이내 해결가능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지자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며 전장 대비 소폭 상승 마감.
- (EUR) 유로는 유로존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 소식에 약세 압력 우세. 유로달러 환율은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1.13125달러까지 하락 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낙폭 되돌리며 1.1348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미-일 무역협상 진전 소식에 강세 흐름. 미국과 일본은 6월 G7 정상회의 이전 정상회담 검토하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 고조. 이를 반영하여 달러엔 환율은 하락 압력 우세, 144.055엔으로 하락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99.438 (+0.084)	
EUR/USD	1.1348 (+0.0020)	1,566.16 (+2.09)
USD/JPY	144.06 (-0.13)	958.03 (+3.80)
USD/CNH	7.2050 (+0.0159)	191.54 (+0.15)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50.2bp (전일대비 +2.5)

-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주요지표 발표에도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 휘둘리는 모습. 미 PCE물가지표는 예상치 부합 수준, 개인소득 호조에 시장 안도감 형성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도발에 시장은 출렁임. 뉴욕 3대증시는 관세충돌 우려에 약세 보이다 차츰 낙폭을 되돌리며 보합권 마감.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13% 상승한 42,270.07, 나스닥은 0.32% 내린 19,113.77, S&P500은 0.01% 하락한 5,911.69 마감. 미국채금리 역시 위험회피심리 확산에 단기를 위주 하락 우세 흐름. 전장 대비 2년물 금리는 -4.1bp 10년물 금리는 1.6bp 하락 마감. 유가는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의 대규모 증산 가능성에 글로벌 수급 불균형 우려로 경계감 확산, WTI 및 브렌트유 동반 하락 마감.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5월)	49.0	48.7

